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마리아, 성가정 대축일

제36권 5호(다해) 2015년 12월27일

[목사]



하느님은 우리 가정을 부르십니다.

가정으로서의 성소를 깨달을 때,
진정 우리는 성 가정으로 나아가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나자렛 성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을 위하여 부름 받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맺고 있는 인간적 관계는 구원사업을 위한 봉헌이었습니다.
씨앗은 우리 가정에도 뿌려졌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하느님 사랑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자신을 봉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명력을 얻고,
그분의 십자가 봉헌을 거울삼아,
우리 가정을 하느님의 은총이 흘러 넘치는 작은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립회 (장례식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드레아(4째주) 성소후원회(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에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6: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감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
	(생)최희철 사도요한 & 김영옥 안나, 김지훈대건안드레아 & 박현주 카타리나, 김임식 마누엘라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운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최병덕 바오로 & 최효선 안젤라, 이사범 로벨토 & 이안드레아,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 변해경 올리안나, 이종수 마틴, 김복님 마리아 & 김차옥 요셉, 이우천 스테파노, 현시영 요셉, 김계성 아가다 & 박희성 테레사, 김봉선 마리아, 김만성, 노정순 베로니카,이용식 베드로
	(생)김현정 헬레나, 황운재 베드로 가정, 메이슨 고, 이영희 콜롬바, 박광식 바오로 & 박정희 마리아, 유철희바오로 & 유현자 안나, 손석 스테파노 & 손두화 스테파니아, 김명숙 루실라, 박정미 클라라, 차인수 안드레아 가정 & 박완철 다니엘 가정, 이광웅 요셉, 윤희동 안토니오 & 윤남열 세라피나, 김정웅 요한 & 막달레나 가정, 윤안토니오 & 세라피나의 대자녀들, 김지훈 대건안드레아 & 김강훈 그레고리오, 유요한 잔, 이지원 클라라, 이상훈 프란치스코, 유니나, 유지숙 캐롤라인, 오세원 아타나시오 & 오혜숙 루시아의 대자녀들, 오 아타나시오 & 루시아의 대자녀들, 김임식 마누엘라수녀, 조옥종 사도요한 사제,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3,2-6.12-14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 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 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3,12-21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복음 루카(Luke) 2,41-52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한국 교회의 역사

2-2. 초기 교회에 대한 박해(1801~1831년)

이 박해의 와중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신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한다. 당시 교회의 총회장 최창현과 명도회 회장 정약종,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 이존창과 유항검이 이때 순교하였으며, 강완숙, 이순이(李順伊, 1781~1801년) 등과 같은 여성 신자들도 이때 순교하였다. 또한 이 박해에서는 앞서 배교를 선언했던 이승훈, 김건순(金建淳), 이희영(李喜英)과 같은 인물들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정약종을 비롯하여 배교를 선언한 대부분의 신자들은 사형을 면하고 귀양을 떠나거나 방면되었다.

이때 황사영(黃嗣永, 1775~1801년) 백서 사건이 발생한다.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황사영은 박해가 발생하자 이를 피하여 제천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는 북경의 주교에게 조선의 박해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려 하였다. 이 편지는 도중에 발각되었고 그도 체포되었다. 편지 내용에는 조선 왕조의 존재를 부인하고 외국 세력의 개입을 요청하는 강경한 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조정은 천주교의 성행에 대하여 더욱 긴장하게 되었다. 그는 '신앙의 자유'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백서를 작성했지만, '무력적 외세'라는 부당한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 때문에 그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인색하게 되었다. 결국 황사영도 자신의 행위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

1801년의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타격을 받았으나, 이 박해는 천주교 신앙을 더욱 널리 전파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니, 박해를 피해 각처로 흩어진 신자들은 피난처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경상도나 강원도로 이주한 내포 지방 신자들은 비밀리에 신앙을 실천하면서 그 지역에 천주교 신앙의 씨를 뿌렸던 것이다. 박해가 끝난 이후 신자들은 교회 재건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았다. 당시 교회 재건에 힘쓴 신자들 가운데는 순교자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丁夏祥, 1795~1839년) 등이 있었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37	101	102
봉헌	255	257	272
성체	279	279	279
파견	146	148	101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신 아기에수님과 성모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보면서

성탄의 밤, 세상은 고요합니다. 2천년 전에 이미 인류세계는 도시화가 시작되었고, 큰 도시에는 부자도, 권력자도, 지식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분주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면서 대도시 부잣집이 아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 그것도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출생처럼 조용히 탄생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리둥절한 충각이 약혼녀의 신비로운 출산을 제대로 돕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소녀인 마리아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출산을 했을까요? 산파의 도움도 없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요셉에게 그때 상황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은 얼마나 황홀한 표정인지요! 자신의 몸에서 생명의 탄생이 이뤄졌으니,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이 순간에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의 그림자를 전혀 엿볼 수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신비로운 잉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과 같은 임신의 경험뿐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와 출산을 했으니, 그분의 감정, 표정, 영혼의 상태는 얼마나 희열에 가득 찼을까요?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는 지에 대해 우리는 자주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몸으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심’을 겪은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존재와 행동을 온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하신 그대로 이

뤄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이 말씀으로 인해, 성모 마리아와 온 인류는 신비로운 성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고되게 살아갑니다. 신 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100세 시대를 걱정하면서 노년을 맞이하고,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늘 바로 우리의 암담한 현실 한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나시고,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희망을 안겨주십니다.

성모 마리아를 본받는 신앙으로 하느님을 맞이하고, 용기를 내서 희망을 향해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성인은 하느님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여 약혼자 마리아의 신비로운 임신을 마음으로 감싸 안고 마구간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향해 고난의 길을 나설 준비를 하는 요셉 성인처럼, 우리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고난에 가득 찬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따라 나서도록 합시다.

◆주수옥 신부 / 대방동성당 주임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박희자 마리아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김금자 테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북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목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목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송년 / 새해 미사 안내

◆ 송년감사 미사 : 31일(목) 밤11시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2016년1월1일(금) 오전 11시

1월1일(금)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며 '세계 평화의 날'로 미사에 참례해야하는 의무 대축일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날짜에 기념해 오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1931년부터 전 세계 교회의 보편 축일이 되었고, 1970년부터 모든 교회에서 해마다 1월1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황 바오로 6세는 이 날을 1968년부터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세계 평화의 날'로 정했습니다.

- ◆ 송년 감사 미사 후 : 생강차 나눔(성모회)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후: 전신자들에게 사목회에서 떡국을 대접합니다

◆ 2015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중에 마감합니다.

-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봉헌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초 Income Tax Return(개인세금보고)를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2015년) 조회가 가능합니다.

◆2016 한인 가톨릭 청소년대회 KCYD 접수 안내

매년 FIAT 장학 재단에 주최로 열리는 한인 가톨릭 청소년 신앙대회의 참가 접수를 이번 주와 다음주 2주간 받습니다.

미사 후 주일학교 교사실로 올라오시면 신청서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인원에 따라 학부모님의 라이드 봉사자 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날 봉사해주실수 있으신 분이 계시면 신청서 제출하시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날짜: 2016년 1월 2일 토요일 아침 8시 체크인
- 장소: Christ Cathedral
- 주소: 13280 Chapman Ave. Garden Grove, CA 92840
- 대상: 8학년-12학년
- 참가비: \$30 (12/27/15 후에는 \$40)
- 문의: 주일학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세 신자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2월 27일 * PV2반 : 콩나물 우거지국 (\$3)
* 주일학교 : 겨울 방학, 수업 없음
- 12월 20일 * 소공동채 : 김밥 (\$4)컵라면(\$2)
* 주일학교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국세찬	권태만	김교복	김민석	김병태	성전헌금	강숙경	국세찬	권태만	김교복	김영덕	김재희		
	김성현	김영덕	김옥찬	김재영	김재희	김정순		김정엽	김현숙	박상준	박정자	송호창	신순철		
	김정엽	김현숙	박상준	박정자	박종열	송재훈		엄혜은	오명섭	오수인	유근우	유영균	윤선희		
	송호창	신순철	엄혜은	오명섭	오수인	유근우		윤화경	이경수	이명선	이병우	이상철	이현주		
	유영균	육근주	윤선희	윤화경	이경수	이근태		이형삼	임한나	정열모	정지숙	최원석	최진수		
	이명선	이병우	이상철	이재철	이태욱	이현주		황인종	송마이클						
	이형삼	임한나	정병우	정열모	정지숙	최원석									
	최 일	최진수	최화숙	홍석인	황인종	송마이클									
	합계:\$7,000									합계 : \$3,890					
	주일미사 헌금 :\$2,639									주보광고: \$840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겨울방학

- 오늘주일(27일) 수업 없습니다.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그대로 영어로 진행합니다.
- 개학 : 1월3일(주일)

남가주 소식

◆ 성경대학 CD판매안내

예수회 송봉모 신부의 성경대학 CD로 영적 성장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1학기부터 8학기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 문의 : 아그네스 성당사무실(323-731-4433)
업무시간 (수~토) 오전 10시~12시, 오후1시~5시)

E-Mail : stakcc@gmail.com

◆LA 골롬바의 집에서 인보 성체수도회 수도자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지내실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 장소 : 248 S. Mariposa Av. L.A. 90004
- 담당: 공 테라사 수녀

☎213-389-7760 / 213-785-1147

◆이나시오 영신수련에 따른 침묵퇴정(4박5일)

- 일시 : 2016년 2월 10일(수)-14일 (주일)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650 Benet Hill Road
Oceanside, CA 92058
- 지도신부 : 이근상 신부(예수회)
- 참가비 : \$450(독방숙식제공)
- 문의 : 정도로테아 (323)937-2083, 818-321-9505
전글라라 818-317-6022

◆미주 가톨릭 방송 새로운 프로그램 소개

1세, 1.5세, & 2세들을 위한 가톨릭 한국어 & 영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뉴욕 퀸즈성당에 부제님으로 봉사하시는 진명부제님의 혼인법과 조당에 관한 프로그램, '진명부제코너'가 1월 첫 주 부터 시작이 됩니다.
- 전경아 세실리아 자매님의 '가톨릭 방송 전경아입니다.' 프로그램이 1월 2째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 지니 자매님의 'Praise and Phrase with Jini Shim' 프로그램 이 1월 2째주 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송년모임으로 대체 12/09(수) 오후 6시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김민수 바오로 12/12(토) 오후 6시
	3	윤미애 안나 560-7120	토런스 한식당(송년회) 12/18 (금) 오후 7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 크리스티나 490-9662	박근식 미카엘 294-9444 12/04(금)오후 7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윤화경 바오로 316-7819 12/12 (토) 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방미숙 마리아 12/11(금) 10시 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12/18(금) 오후 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테레사 12/14(월) 11시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12/12(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 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정동호 하상바오로 12/14(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권태만 실베스텔 749-3151 12/12(토) 6시30분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최재은 베드로 997-9006 12/18(금)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12/11 (금)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12/11(금) 7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최수지 카타리나 12/18 (화)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의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	----

124위 시복특집<37> 김 대권 베드로 (?~ 1839년)

김대권(金大權) 베드로는 충청도 청양의 수단이(현 충남 청양군 사양면 신왕리)에서 태어나 보령의 청라동(현 충남 보령군 청라면 청라리)으로 이주해 살았다. 1816년 대구에서 순교한 김화춘(야고보)은 바로 그의 아우이다.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교리를 배워 왔으나, 열심히 수계하기 시작한 것은 부모가 사망한 뒤였다. 한때 베드로는 충청도 공주의 웅기점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이 무렵에는 아내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는 천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랑이에게 물려 가는 아내를 구하는 꿈을 꾸었다. 다음날 그는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며 지난날의 잘못을 서로 이야기하였고, 이후로는 아내와 화합하여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었다.

김대권 베드로는 언제나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계하는 데 열중하였다. 주일마다 이웃에 복음을 전하였으며, 예수 성탄 대축일이면 근처의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면서 밤을 새웠다. 언젠가는 호랑이가 그의 앞에 나타난 적도 있었는데, 그는 이에 개의치 않고 평소처럼 기도를 다하고 내려왔다. 사순 시기 때면 기도와 묵상을 거르지 않았고, 하루에 한끼의 식사만을 하였다. 그러던 중 아우 야고보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아우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순교 원의를 나타냈다. 그 후 베드로는 전라도 고산으로 이주하여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1827년의 정해박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때 그는 교우들에게 피신을 권유하면서도 자신은 천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오래지 아니하여 포졸들이 그 마을로 들이닥치자, 베드로는 웃는 얼굴로 그들 앞에 나아가 순순히 고산관아로 끌려갔다.

고산에서 한 차례 신앙을 증거한 베드로는 곧 전주로 이송되어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서적을 갖다 바치거나 교우들의 이름을 델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전주 관장이 그의 아들을 데려와 목에 칼을 겨누었을 때도 그는 '이러한 일로 목이 잘리면 아들에게도 크나큰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배교를 거부하였다. 이후 그의 아들은 유배형을 받았다.

감사 앞으로 끌려가서도 김대권 베드로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혹독한 형벌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

은 수난의 은혜를 한 터럭만이라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순교 원의를 드러냈다. 그의 결심이 얼마나 굳었는지는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매를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의 삶과 뼈에 사무쳐 있으므로 사지를 자르거나 뼈를 부순다고 하여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할 수 없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도록 명하였다.

이후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12년 동안을 전주 옥에서 생활해야만 하였다. 그 동안 그는 세 번이나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을 하면서 한결같이 목숨 건지기를 거부하였다. 그러다가 1839년의 기해박해 때, 임금의 명에 의해 전주 장터로 끌려나가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그 때가 1839년 5월 29일(음력 4월 17일)이었다.

◆서울대교구 홍보국 역임

[교리 상식]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와 요셉 성인, 천사들과 목동들, 양과 소, 외양간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생각해 보는 일일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귀한 아드님을 세상에 선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의 귀한 아드님은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유 앞에서 생각해봅시다.

산타클로스도 가톨릭 성인인가요?

☞산타클로스는 '니콜라오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니콜라오 성인은 약 1700년 전에 오늘날 터키 지역에 살았던 주교였습니다. 인정 많은 니콜라오 주교는 가난한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을 잘 보살폈고, 그들을 남몰래 도와주었습니다. 니콜라오 주교는 12월6일에 선종했는데, 이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비 신자 궁금증 105가지』 / 가톨릭출판사

거인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 다윗을 아시죠? 그가 소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의 사울 임금이 군대와 함께 그들에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산마루에 모여 있었고 맞은편에 모여 있는 필리스티아 병사들은 날카로운 철로 만든 창들로 무장하여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 병사들 중 거인 투사 한 명이 나섭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무엇이라 말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무엘 상 17,1-11

골리앗이 소리를 쳐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반응이 없자, 그는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다시 나타난 그는 더욱더 교만해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돌아갔고, 이런 일이 사십여 일이나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간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른 병사들과 대화를 하고있던 다윗의 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뭐라고 말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무엘 상 17,12-28

다윗이 한 말이 사울 임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어린 다윗을 말립니다. 다윗이 계속 청하자 사울은 허락을 하고,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었지만, 다윗은 무겁다며 갑옷을 벗어 버리고 골리앗과 일전을 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무엘 상 17,30-58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였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영웅으로 선언했고 모든 백성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총 40년 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느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고, 종교적으로 나라를 단합시켰으며, 그의 통치 기간 중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골리앗은 망심하여 소년 다윗을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과 더불어 하느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오늘 ()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사무엘 상 17,46)

사울이 그에게 “젊은이, 자네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사람, 임금님의 종 ()의 아들입니다.”하고대답하였다.” (사무엘 상 17,58)

[기도묵상]

그리스도의 영성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도 아니고, 모든 유행을 뒤쫓는 적극성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성령에 사로잡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1-855-388-4141 Los Angeles, CA 90006

썬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예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리역할을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남골당
Jean Kim

☎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몬*마리아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요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쟈미-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블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알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